

[창립20주년기념 기획인터뷰1]

INTERVIEW

명예회장

안태호

「물류에 대한 전문인이 되어라」

2004년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 어느 해 보다 뜻 깊은 한해라고 할 수 있겠다. 1984년 9월 1일, 이날은 지금의 (사)한국물류협회의 창립일이기 때문이다. 약관의 (사)한국물류협회는 앞으로 더 한국물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의 (사)한국물류협회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동안 한국물류연구원을 시작으로 한국물류관리협의회 등을 거치면서 한국물류발전사의 주역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동안 한국물류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인사들을 찾아 뵙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첫번째로 한국물류협회의 모태인 한국물류연구원의 초대 회장인 안태호(사)한국물류협회 명예회장을 만났다.

안태호 명예회장은 초창기 한국물류협회가 있었던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0번지 요진쉐레이 빌딩 808호를 현재 개인사무실 용도로 사용해 오고 있다.

- 한국물류연구원 창립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 1984년 9월 1일 서병문 현 (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을 주축으로 12명이 발기하여 한국물류연구원을 설립하고 초대회장으로 저를 추대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교수로서 대학강의로 바빴지만 물류발전을 위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한국물류연구원 현판식을 가지면서 이사진도 구성하고 이사회 모임때에는 여러 가지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듬해 한국물류연구원을 한국물류관리협의회로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물류연구원은 점진적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물류관리협의회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사단법인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 물류관리사 초창기 교육교재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물류문제에 관해 논의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막상 물류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어떤 사업을 먼저 시작할 것인가 하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로지스틱스협회와 업무제휴를 맺고 사업에 대한 많은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 일본로지스틱스협회 전무이사인 모토키 이나스카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물류에 대한 계몽과 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물류관리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12기 수까지 물류관리사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또 물류정보에 대해 상호교류하고, 물류업체에 대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개발도입의 단계로 물류업체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기술을 도입하였고 1990년은 보급확대기로 물류합리화를 추구하는 시기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류관심과 발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물류전국대회를 개최해 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국외적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물류에 대한 상호 교류를 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APLTF)의 전신인 아시아·태평양 물류협의회(FAPLO)를 1990년 10월 15일 조직해 초대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당시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이 회원국이었습니다.

또 일본 선진물류의 벤치마킹을 위해 매년 30~40명씩 파견해 일본의 대표적인 물류업체는 거의 다 시찰하였습니다.

- 창립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초창기에는 물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호응도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소위 개점휴업상태였습니다. 물류관리사 교육,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해도 호응이 크지 못했습니다. 회원사로 참여하는 업체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자금부족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9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사무실 보증금 천만원에 월 50만원을 제가 4년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3억 가까운 금액을 물류협의회를 위해 헌납했습니다.

제가 좋았기에 물류발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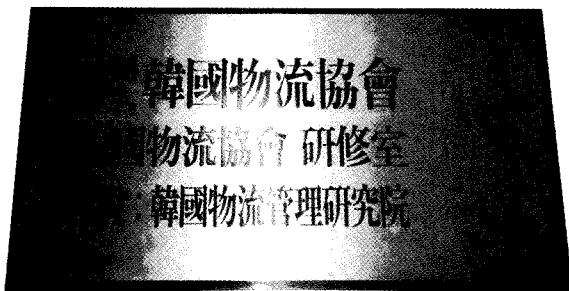
물류에 관한 책자 발간을 통해 인식을 널리 전파하였고, 1992년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설립 및 발족을 통해 광범위한 물류학자를 규합하였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물류관리협의회가 법인체로 인가를 받은 것과 경제기획원을 통해 정부 컨설팅 용역을 수주한 것, 즉 물류표준화에 관한 용역을 받아온 것이 기쁜일이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건설교통부로 산하기관을 옮기는 것 보다 처음 경제기획원에 계속 있었다라면 정부 용역사업을 많이 받아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그 당시 정부용역을 수주해 오는 조사부가 좀 더 역동적으로 활동했으면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도 남습니다.

- 초창기와 지금의 (사)한국물류협회를 바라보며 느끼시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 현재는 초창기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물류에 대한 합리화 단계를 거쳐 관리화 단계로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수익사업으로 재정자립도가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업체의 재정 지원없이 100%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어도 회원사 500개사를 확보하고 회비 수익으로 물류협회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회비의 수익없이 협회 자체 사업만으로는 협회운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 한국물류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물류협회 활동의 기업에 대한 강한 어필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업이 물류에 대한 전문부서가 없이 회원사로 참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컨설팅 용역의 강화를 통해 회원사를 비롯 업체를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회원사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대정부 건의와 정부의 기업체에 대한 지원은 물류협회가 없이는 어렵다는 인식과 회원사들에게 신뢰감이 필요합니다.

- 물류인들에 하고 싶은 이야기

▶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류에 대한 전문인이 되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류는 경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자로서 책임감을 확립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담당자의 프라이드 함양도 필요합니다.

이제는 생산주도형 경영보다 물류주도형 경영이 필



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원자재를 조달하는 조달물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물류, 각각의 소비재로 전달되는 판매물류가 제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한 후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회수물류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물류를 떠나서는 기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류주도형 경영이야말로 기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물류관리의 문제로 물류에 대한 여러가지 관리에 소홀한 업체는 망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 박현곤 차장
-사진·정리: 김광용 기자

<표1> 한국물류협회 연혁

년 도	내 용
1984년 9월 1일	한국물류관리 연구원 창립 조대 회장 인태호 취임(인하대학교 경성대학 교수)
1984년 12월	일본 물류관리 협의회와 업무 제휴
1985년 1월	제1회 물류연구회 실시
1985년 2월	물류뉴스 발간
1985년 5월	제1회 일본 물류시찰단 파견(30명)
1985년 10월	제1회 한국물류전국대회 개최(대한상공회의소)
1989년 7월	(사)한국물류관리협의회 창립 제1대 회장 인태호 취임(인하대학교 경성대학 교수)
1990년 2월	사단법인 한국물류관리협의회 설립인가(경제기획원)
1990년 3월	제1회 한·일 물류전국대회 개최
1990년 10월	아시아·태평양 물류조직연맹 회장국으로 파선
1993년 10월	제1회 1993년 한국물류전국대회 개최
1995년 5월	(사)한국물류협회로 기관명칭 변경(재정경제원)
1995년 9월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인가기관 이관(재정경제원→건설교통부)
1997년 1월	제2대 회장 김여환 취임(대한통운(주) 사장)
1997년 9월	제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1998년 5월	동서대학교와 산학협동 협정
1999년 5월	협회 '서비스' 상표 등록(등록 제 0055154호)
2000년 6월	제3대 회장 서병륜 취임(한국파렛트(주) 사장)
2001년 3월	한국로지스틱스대상 단체상 수상(한국로지스틱스 학회)
2001년 8월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부회장국으로 파선
2002년 2월	제1차 물류정책토론회 개최
2002년 2월	제4대 회장 서병륜 연임
2002년 8월	격월간 '물류' 창간호 발행(등록번호:서울마02887)
2002년 10월	아시아·태평양 물류연맹 회장국으로 파선

<표2> 한국물류관리 연구원 창립 멤버

담당분야	성 명	당 시 직 업
회 장	안태호	인하대학교 경성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원 장	서병륜	
물류조직과 회계	전만술	한국경제개발협회 부소장
유니트 로드	윤문규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연구위원
포 장	하진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부이사장
운반·하역	유헌수	한국과학기술원 생산기술연구실 실장
수 송	임호규	인하대학교 경성대학 교수
창고·보관	김정환	태평양화학공업(주) 상품유통본부 본부장
자재구매관리	신유균	삼성전자(주) 구매기획과 과장
유통·가공	임영웅	해외유통연구소 소장
정 보	여진옥	IBM Korea(주) 과장
감 사	장억근	(주)유일 사장